

차 례

결과보고서 요약문

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방향
 - 기대효과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 2) 실제추진 현황
-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관련분야 기여도

2. 예산

- 1) 예산 계획
- 2) 실제 예산 집행

3.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기타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기관	역사연구소		
사업명	근대 개성(開城) 관련 자료 집성과 목록 정리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김태웅	역사교육과	교수
사업기간	2018.4.1.~2019.2.28	사업비	

1. 사업목표

- 남북 분단 및 교류협력의 상징 지역인 개성에 대한 관심 제고

-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지역으로서의 개성
-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서의 개성

근현대 개성 지역의 역사 관련 자료 집성과 목록 정리

-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개성의 근대사에 주목
- 근대 개성 연구를 통해 북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 파악

2. 사업의 내용

- 『조선왕조실록』, 한말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서우』, 『서북학회월보』, 『기호학회월보』, 『대한홍학보』, 『대동학회월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일제강점기 『매일신보』, 『개벽』, 『삼천리』, 『별건곤』, 『동광』, 『고려시보』, 『농민』, 『반도시론』, 『서광』, 『신민』, 『제일선』 지를 비롯한 주요 신문 및 잡지에서 개성 관련 내용 추출

3. 사업의 성과

- 개성 관련 자료 추출은 해방 후 최초의 작업임.
- 근대 개성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
-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성 관련 통계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출될 필요가 있음. 특히 예산 증액을 통해 현대 개성 관련 자료 추출이 시급함.

역사연구소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개요

- 사업명: 근대 개성(開城) 관련 자료 집성과 목록 정리
- 기관명: 역사연구소
- 총 사업비: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남북 분단 및 교류협력의 상징 지역인 개성에 대한 관심 제고

- 개성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친 지역임.
- 대부분의 지역이 38선 이남에 위치한 개성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의 영토 하에 있었다가, 한국전쟁 중에 정전회담의 무대를 거쳐, 북한의 영토로 편입된 '신해방지구'임.
- 2002년 북한에 남북합작공단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이 들어섬.
- 2000년대에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 학술토론회가 주로 개최된 지역임.

○ 목적

- 근현대 개성 지역의 역사 관련 자료 집성과 목록 정리

- 개성은 단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인접성과 북한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노무관리 차원에 머무는 공간이 아님.
- 개성은 조선 후기 이래 한국전쟁까지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지역임

사례) 조선 후기 숙종대 상평화폐가 공식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개성상인들은 이미 화폐를 주조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함. 개성상인은 조선의 3대 민간 상인으로서 전국에 점포를 가지고 전국적 상업망을 운영했음. 한말 일제 시대에도 토착 자본의 산실로서 일제가 인삼을 노려 개성경제권을 장악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감. 일제하 한반도에서 조선인 실업율이

제일 낮은 곳이 개성일 정도로 토착적 기반이 강할뿐더러 민족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특히 복식부기가 일찍부터 발전하여 회계 관리상에 일찍부터 자본주의적 관리를 구축하고 있었음.

- 북한 도시사 연구의 기반으로 개성 자료 구축

- 2018년은 고려 건국 1100주년 되는 해이자 남북교류의 재개가 기대되는 해로서 개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개성의 역사적 위상에 비추어 그동안 개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의 공백이 있으며 체계적인 자료의 집성 및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개성을 비롯하여 북한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인 평양, 원산, 해주 등에 대한 연속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목록 정리를 통해 ‘사라진 기억’으로서 북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을 살펴보고 자료 편찬을 기반으로 차후에 출판을 위한 작업을 시도하고자 함.

□ 기본방향

-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개성의 근대사에 주목
- 근대 개성 연구를 통해 북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 파악

□ 기대효과

- 남북 분단 및 교류의 상징 지역인 개성에 대한 자료 집성을 통한 통일의 기반 구축
 - 개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일 한국의 내재적 통합 역량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음.
 - 개성의 현 주민의 경우, 전쟁과 잦은 이주로 인해 토박이들의 비율이 작지만, 대부분은 개성의 역사적 전통과 경제적 특징을 잘 알고 있음. 남한 주민과 기업이 개성의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이후 통일 한국의 내재적 통합 역량을 구축하고 남북 주민의 소통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봄.
- 북한 지역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남한이 서울의 전부가 아니듯, 북한도 평양이 전부는 아님. 실제로 경기도에 속하는 개성 사람들의 말투는 서울과 거의 같음. 북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복합성을 깨닫는 것은 남북 사이의 이항대립을 넘어 한반도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

- 남북 역사학계 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2018년은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운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임. 고려의 서울인 개성의 역사를 돌아보는 연구는 남북 학계의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2018. 3~2018. 5	근대 개성 연구 현황 파악과 자료 개황 조사
2018. 6~2019. 1	자료 추출 및 구축
2019. 2	결과 보고서 준비 및 제출

2) 실제추진 현황

- 주요 연대기 자료, 신문, 잡지에서 개성 관련 자료 추출
- 『조선왕조실록』, 한말 신문 잡지, 일제강점기 『개벽』 지를 비롯한 주요 잡지에서 개성 관련 내용 추출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서울대학교 2018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11.27)에서 김태웅, 「근대 개성지의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발표
- 김가연, 「韓末~日帝強占期 開城 高漢承家の 社會·經濟 基盤과 地域有志活動」, 석사학위 논문(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역사전공)으로 학위 취득 예정.

□ 관련분야 기여도

○ 남북 분단 및 교류의 상징 지역인 개성의 자료 집성을 통한 통일의 기반 구축

- 개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일 한국의 내재적 통합 역량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음.
 - 개성의 현 주민의 경우, 전쟁과 잦은 이주로 인해 토박이들의 비율이 작지만, 대부분은 개성의 역사적 전통과 경제적 특징을 잘 알고 있음. 남한 주민과 기업이 개성의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이후 통일 한국의 내재적 통합 역량을 구축하고 남북 주민의 소통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봄.
- 북한 지역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남한이 서울이 전부라 아니듯, 북한도 평양이 전부는 아님. 실제로 경기도에 속하는 개성 사람들의 말투는 서울과 거의 같음. 북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복합성을 깨닫는 것은 남북 사이의 이항대립을 넘어 한반도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

○ 남북 역사학계 교류의 계기

- 2018년은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운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임. 이후 고려의 서울인 개성의 역사를 돌아보는 연구는 남북 학계의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북한 도시사 연구를 위한 시범 조사 작업

- 북한 근현대 도시에 대한 연구는 접근성의 장애와 이질성의 심화로 지지부진한 상태임.
- 개성 조사를 필두로 평양, 해주, 원산, 신의주, 청진 등 북한 주요 도시 연구를 위한 시범 조사의 선구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오늘날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성 공단에 대한 관심 제고로 사업의 목적과 결과물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됨.
 - 사업 계획과 성과물에 비추어 타당성을 확보함.
- 사업의 효율성
 - 한국 근대사 전공자의 효율적인 협업 및 분업에 기반하여 자료 추출의 효율성 제고. 추출 결과물의 질 확보.
- 사업의 영향력
 - 근대 개성 조사 연구는 대한민국 최초 조사 작업으로 북한 도시사 연구의 신기원을 이룸.
- 사업의 발전가능성
 - 종전에 북한도시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 분야 연구의 선구로서 추후 북한도시사 조사 연구의 관심과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 전망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기존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대폭 삭감되면서 현대 개성 조사 작업이 차후 작업으로 밀리게 됨. 예산과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현대 개성조사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근대 개성 자료 추출 작업은 예산 확보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현대 개성 조사 작업으로 확장할 예정임.
- 만일 예산액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근대 개성 조사에서 미흡한 통계 자료 추출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지속할 예정임.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북한도시사 연구는 현재 단지 북한 도시의 역사적 자취와 내력을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음.
- 대한민국의 기업인, 국민들의 북한 도시사에 대한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보를 통해 통일 문제를 추상적인 차원이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함.
- 곧 대면하게 될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한 역사적 기반을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 수준을 제고하도록 도모해야 함.
- 이런 작업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추후 근대 개성은 물론 현대 개성 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 요청

□ 기타

- 통일평화연구원원의 소장 자료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연구
- 통일평화연구원과 유관 연구소의 협력 사업 강화 필요.

3.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 근대 개성 자료 집성